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생활예절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김 태 희(원광대 박사과정) · 홍 달 아 기(원광대 교수)

예절은 가정의 일상생활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워지는 것이며, 가정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학업위주의 교육과 산업화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와 가족형태의 변화는 더 이상 가정에서의 가정교육과 생활예절문화교육은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더구나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머니인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의 가족생활·가정교육·문화·예절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학업성적 위주의 교육에 치중하다 보니 생활예절교육이나 인성교육에는 관심을 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생활예절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선행연구 고찰, 포커스그룹과 인터뷰를 종합하여 요구도 설문지를 구성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생활예절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방법 요구도 결과는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1시간 이내로, 1주일에 1회 정도로 운영하며, 교육은 ‘아주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요구도 결과를 토대로 개발한 프로그램 내용은 1회기는 다양한 인사와 존댓말 쓰기 그리고 올바른 호칭알기, 2회기는 나-전달법과 경청을 통한 올바른 대화방법을 습득과 전화·방문·공공장소 예절문화, 3회기는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음식문화와 식사예절, 4회기는 가정 내외에서 있는 행사인 생일, 어버이날, 명절, 경조사에 대해 알기, 5회기는 나와 우리 가족의 장점을 찾아 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효과는 사전·사후인터뷰와 약속카드 이행을 통한 행동변화의지를 확인하는 질적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머리로 알고만 있었던 생활예절문화를 직접 실천해볼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 어머니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어머니나라의 언어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나의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이에 대한 생각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일상생활 행동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나의 장점을 알게 되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생각하면서 좋은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맺어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생활예절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다각도의 요구도 조사를 통해 이를 기반으로 생활예절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교육받는 참여자들의 변화의지를 확인하고 다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대상의 범위가 포괄적이지 못했다는 점, 추후효과를 보지 못하였다는 점, 교육이 장기적이고 연속적이지 못했다는 점 등이 제한점이다.